

“200만 서부해당화 활짝 핀 강진 놀러오세요”

6-14일 남미륵사 일원서 제1회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군동서 강진읍까지 연계 지역상권 활성화·관광 자원 홍보

강진군이 봄을 맞아 200만 그루의 서부해당화가 활짝 핀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로 초대한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과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가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강진군 군동면 남미륵사 일원에서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를 개최한다.

군은 올해를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선포하고 봄철 수많은 남미륵사 방문 관광객을 강진읍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관광 자원 홍보에 나선다.

이번 축제는 봄축제의 특성을 반영해 중·장년과 커플이 주 타깃이다. 길러온 텃밭인 꽃에 집중해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체류 시간을 대폭 늘린다.

봄꽃을 연상시키는 핑크색을 메인 컬러로 공간을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이색 경험을 제공한다. 주 행사장인 남미륵

사 주차장은 핑크빛 야외 정원 카페로 변신한다.

개장식은 6일 오전 10시 남미륵사 주차장과 탐방로 일원에서 열리며 폐막 공연은 14일 오후 4시 지역 가수와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특히 행사인 '봄꽃 힐링 카페테리아'는 축제 기간 동안 주 행사장에서 강진 딸기를 소재로 한 축제 시그니처 음료를 판매한다.

인근에는 '초록민음' 부스를 만들어 친환경쌀·잡곡, 생표고, 쌀귀리빵, 찹쌀떡, 건미역, 다시마, 목이버섯, 연잎과 장, 작두콩차, 쌀귀리를 판매한다.

꽃동네 주막촌은 군동면민이 운영하는 먹거리와 소상공인의 상품 판매 공간이다.

또한 '핑크빛 봄날 포토존'과 봄날 인생 사진관 셀카 마스터를 행사장과 탐



강진군이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강진군 동면 남미륵사 일대에서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남미륵사 일원에서 서부해당화가 만개한 모습. <강진군 제공>

방로에 비치해 관광객들이 인생샷과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문화 행사인 '봄꽃 프린지'는 축제 기

간 평일에는 오후 1시, 주말에는 오후 2시에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을 선보인다. '메이드인 강진예술제'는 주말

과 휴일 오전 11시부터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강진에 봄봄 페스타'는 다양한 이벤

트로 현장 참가자 모집 후 진행되는 즉석 톨렛 경품 이벤트다. 매일 5천원 상당 강진사랑상품권 100명, 3천원 상당 강진 특산품 60명이 행운을 누릴 수 있다.

베스트 포토 스팟인 '봄날 화양연화'와 '플라워 아트공방'에서는 나만의 꽃향수 만들기 체험을 제공한다. 1인 5천 원이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관내 배달비가 무료다. 공공배달앱 먹게비를 이용하면 평일·주말 5천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반값 축제를 위한 '강진사랑상품권페이백 이벤트'는 축제 기간 당일 소비한 지류 카드 영수증 금액에 따라 5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소비액의 10%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축제장인 남미륵사와 강진읍에서 사용한 영수증의 합산액이다.

강진읍 군수는 "꽃을 소재로 한 강진의 축제는 봄을 거쳐, 여름, 가을로 이어질 것"이라며 "축제가 관광 관련 3차 산업뿐만 아니라 1차 산업을 통한 지역민 소득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함평군, 2조8천744억 규모 '지역발전 전략' 구체화

정책자문委 정기회의서 미래 공간개발 방향 논의 고소득 농업실현 '전통식품 가공 클러스터 구축' 제안

함평군이 2조8천744억 규모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공간 개발 전략' 구체화에 나섰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2일 학식과 역량 있는 전문가 및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지역발전 비전 공간개발 전략'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된 위원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공간개발 전략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함평군은 지난해 9월 전남도와 함께 1조7천100억원 규모의 '함평군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비전사업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함평군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군 공간 구조를 3개축(해양생태, 산악녹지, 미래성장)으로 나눠 공간 구조별 특성에 부합한 신규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발전하는 2조8천744억원 규모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공간개발 전략'의 구체적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임영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발표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연계 고리로 더 큰 발전을 꿈꾸고 실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고소득 농업 실현을 위한 '전통식품 가공 클러스터 구축'을 추가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상익 군수는 "미래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 공간개발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석해 준 위원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혜로운 고견이 필요하다"며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 건설의 밑거름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연수 기자>

전남권 단일의대 공모 추진 '후폭풍'

전남 서부권 34년 숙원...목포대에 유치 한 목소리

전남도가 전남권 의대 신설 관련 단일의대 공모로 추진하겠다는 발표 이후 지역 사회에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립목포대의과대학 유치 전남도민추진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34년의 기다림, 전남도 의대 공모 추진은 어불성설"이라며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약 44%가 위치해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 공중보건 의도 매년 감소해 도서지역 의료체계는 이미 무너진 상태"라고 밝혔다.

전전주 국립목포대의과대학 유치 전남도민추진위원회장은 "정치권과 시민 사회가 총력을 다해 의대 유치를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명분 있는 목포대로 반드시 의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대는 "통합 의대 추진이 어려워

지자 외부기관에 전남 의대 입지를 결정토록 한다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과 낙후지역 의료공백 해소라는 도민의 뜻을 외면한 매우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목포문화연대도 이날 "34년의 숙원인 목포대 의과대 신설은 당연하다"며 "김영록 지사의 정치적 야망의 편향 때문에 서·동부권 간 도민들의 갈등이 깊어져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연대는 "김영록 지사가 정치적으로 동부권인 순천대의 의대 유치를 결정해 놓고 공모 방식의 술수를 부리고 있다"며 "목포대의대 유치를 34년의 긴 역사적 과정과 지리·환경적으로 볼 때 준비된 목포대에 설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신안 세계자연유산 갯벌 보전 日 교류

일본 아리아케 지자체 국제교류 워크숍 추진 협의

신안군이 신안 갯벌의 지속 보전을 위해 일본 아리아케와 국제 교류를 추진한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세계자연유산인 신안 갯벌의 지속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일본 아리아케 관련 지자체(가시마시·사가시·아라오시) 및 람사르 습지센터와 국제 교류를 추진한다.

신안 갯벌은 국제적 보호종인 도요·물떼새를 비롯한 해양성 조류의 중간 기착지로 지난 2021년 1천100㎡에 이르

는 광활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일본은 규슈 북서부에 있는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에 걸쳐 있는 규슈 최대의 만인 아리아케 내 핵심 지역인 10,290㎡를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했다. 습지보호지역은 한국의 갯벌 자연유산처럼 3개 지자체(가시마시·사가시·아라오시)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신안 갯벌과 일본 아리아케 갯벌은

멸종위기 조류가 서식하는 등 생태계가 유사하고 김·어패류를 양식하는 지역민의 생활 터전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 등 상호 공유할 공통 주제가 많다.

최근 신안군을 방문한 일본 람사르 습지센터 사무국장과 일행은 신안 갯벌을 둘러보고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 신안군의 15년간 노력과 비결, 군민들의 지원 등 여러 가지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또한 오는 5월 일본 습지보호지역을 관리하는 3개 지자체 관계자가 신안군을 방문해 갯벌 보전을 위한 국제 교류 워크숍을 추진하는데 상호 협의했다.

<신안=양훈 기자>

완도군 '전남 정원 페스티벌'

8일까지 참여 정원 참가자 모집

완도군은 4일 "제4회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 참여 정원 참가자를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4회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정원이 함께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5월1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총 30개의 참여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참여 정원의 주제는 정원 페스티벌을 찾는 관람객이 정원을 관람한 후 집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정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타이니 하우스 가든' 즉, '작은 집과 같은 정원'으로 선정했다.

참가 자격은 정원 조성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출품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 3팀, 우수 6팀 등 총 9개 팀을 선정해 5월3일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여 정원은 오는 5일부터 31일까지 해변공원 일원에 조성되며, 페스티벌 기간인 5월1일부터 31일까지 전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누리집과 한국가드너협동조합 누리집에 게시된 '2024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 참여 정원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



'e-모빌리티 엑스포' 국제 행사로 키운다

영광군,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서 긍정적 결과 도출

영광군이 e-모빌리티 엑스포를 정부 승인 국제 행사로 승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군은 4일 "지난 2일 군정 소회의실에서 'e-모빌리티 국제 엑스포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보고회에서는 강종만 영광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원, 실과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e-모빌리티 국제 엑스포 개최 여건 및 타당성 분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국제엑스포 개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영광군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e-모빌리티 산업의 확산과 글로벌 e-모빌리티 중심지로 영광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e-모빌리티 엑스포'를 정부 승인 국제 행사로 지정받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국제 행사 정책성 등급조사 기준을 바탕으로 외부적 환경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e-모빌리티의 높은 시장 성장성을 바탕으로 공익성, 혁신성, 정책 부합성에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해냈다.

다만, 내부적 환경 분석에서 환경영향 실증 연구 기반 구축 및 인증평가 시설 등 우수한 인프라 조성 대비 산업 활성화 부분이 미비하다는 점이 미흡한 점으로 분석됐다.

강종만 군수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e-모빌리티 엑스포의 국제행사 승격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며 "국제 행사 승인을 위해 영광군만의 강점을 부각하고 약점을 보완해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인 영광의 임지를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해남군 물김 위판액 1천억 돌파 "역대 최대"

해남군의 2024년산 물김 위판액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천억원을 돌파했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2024년산 물김 위판액이 지난 3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1천5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산 물김 전체 위판액인 722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로 위판 종료일인 4월말까지 1천200억원 가량의 위판고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남군은 2024년산 김양식을 위해 8천237ha 면적에 16만4천740여액을 시설해 지난해 10월19일 화산 구상위판장(사진)을 시작으로 물김 위판을 추진했

다. 현재까지 생산량은 5만7천360t으로 4월말까지 최대 6만5천t의 물김을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물김 위판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마른김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김 재고물량이 감소해 원재료인



물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대비 양식 면적이 줄고, 생산량도 감소했으나 생산 금액은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안정적인 해황으로 평균 수온이 지속 유지되면서 업체 성장을 촉진시켰고 초기 채묘시기에 갯벌 발생이 적어 고품질의 물김을 생산할 수 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해남=박용우 기자>